

## AWCA 목적

기독교 정신으로 아시아 가정과 남성, 여성 및 노인들을 위하여 전문상담과 사회복지,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개인 생활과 지역사회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Asian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 AWCA

발행인 : 김선우

편집인 : 제미경

**SUMMER 2014**

[www.awcanj.org](http://www.awcanj.org)

Vol. 49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Tel. 201-862-1665, 1664, 1116 (가정상담소, 9111(홈케어) Fax. 201-862-1662 E-mail: [awca.nj@verizon.net](mailto:awca.nj@verizon.net)

## AWCA 가정상담소 25주년을 기념하며……

글 : 제미경 사무총장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 AWCA 가정상담소 25주년을 축하하고 후원하기 위해 홈콘서트에 참석한 분들의 얼굴에서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과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만한 행복감은 음악회 내내 모든 분들에게서 끊이지 않고 넘쳐흐렀습니다.

AWCA 가정상담소 시작을 알리는 개원 예배를 드렸던 그 날부터 25주년 기념 기금 마련 홈콘서트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까지 가정상담소는 AWCA 설립 목적이 그러하듯 적절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으로 개인과 커뮤니티의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이들의 시간과 물질적 기여가 끊임없이 필요하지만, 감사하게도 마치 계획되어있던 것처럼 그때그때 너무나도 필요한 분들이 가정상담소로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기적처럼……

2014년 6월 5일 가정상담소 25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홈콘서트 역시 또 다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홈콘서트는 전문 정신 상담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전문상담사를 추가 확충을 구체적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위하여 AWCA 이사진과 직원, 그리고 가정상담소 그레이스 핫라인 봉사자들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소 기금 모금을 위하여 감동과 열정의 음악을 연주해주신 피아니스트 Min Kwon 과 CME 젊은 피아니스트 Carl Bolleia, SooYeon Cho, Erikson Rojas, 홈 콘서트를 위해 자신의 집을 음악회 장소로 내어주시는 김화영·문태원 박사님, 음악회를 위하여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Yoon & Icon Events, 모두가 값없이 자신의 재능과 마음을 기부해주셨습니다. 또한, 음악회에 참석하여 주신 청중들 모두가 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하여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콘서트로 총 2만 2천불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전문상담사 한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늘 그러하듯이 어디



선가 그 필요가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한 분의 전문 상담사가 오면 일주일에 스무 명의 환자를 더 상담할 수 있으며, 스무 명 개개인에 연결된 가족과 주변인을 생각하면, 커뮤니티에 미칠 그 영향력은 의미가 크리라 기대합니다. AWCA는 '사람을 살리는 기관'으로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이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로서 오늘도 사랑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내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 AWCA NEWS 2014-2013

## 1. KACF 지원금- AWCA 시니어프로그램 선정

AWCA 시니어프로그램이 한인커뮤니티 재단(KACF)로부터 2만 5천불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 기금은 1년 동안 AWCA 시니어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한인커뮤니티 재단은 2014년 7월 10일 뉴욕, 뉴저지 지역 22개 단체지원금 수혜 기관대표들과 함께 리셉션을 열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 3. SAT 스칼라십 클래스

대학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SAT 클래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AWCA SAT Scholarship Class가 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됐다. 올해는 최예경 SAT 프로그램 디렉터의 지도 하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한 강승희 교사, 김원익(수학담당) 교사, 그리고 정주나 보조강사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다. 올 가을학기 기준으로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 18명은 5주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적게는 100점에서 많게는 300점까지 성적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수업시작 전 교사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Sharing Time이 큰 도움이 되었다. 올해는 AWCA 건물 증축공사로 인해 AWCA 회관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티벡에 위치한 나비박물관에서 장소를 제공. 후원했다.



## 3. 위옥환 이사장 2년 연임



AWCA 이사회는 2014년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옥환 이사장을 2년 더 연임하기로 6월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위 이사장의 새임기는 2016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 4.뱅크카드 서비스- AWCA 소셜 서비스 기금 지원

신용카드 프로세싱 서비스인 뱅크카드 서비스사는 AWCA 소셜서비스 프로그램에 3천불의 기금을 지원했다.



## 5.아이소리모아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2014년 6월 7일 토요일 티벡에 위치한 나비박물관 원저홀에서 AWCA 아이소리모아어린이합창단 4기 단원들의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6세에서 12세까지 남,여



어린이 13명이 함께 한 이날 공연에서는 워십댄스 4곡으로 활기찬 오프닝 무대를 시작했으며 1년 동안 배운 한국동요와 복음성가, 디즈니 노래 14곡을 연주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아이소리모아 학부모회가 직접 준비한 장미꽃을 손님들에게 직접 팔아서 남긴 수익금 전액을 AWCA에 기부했다.

## 6.가정상담소 25주년 기념 기금모금 홈콘서트

AWCA 가정상담소 개원 25주년을 기념하고 후원하기 위한 기금모금 홈콘서트

가 6월 5일목요일 저녁 6시 30부터 AWCA 가정상담소 전문 상담사이자 심리학자인 김화영박사 집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CME (The Center For Musical Excellence)의 피아니스트 권민경 단장과 세명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했으며, 가정상담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위옥환 AWCA 현 이사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두 2만 2천여불의 기금을 모았으며, 이 기금은 가정상담소의 전문 상담사 충원에 쓰여지게 된다.



## 7. 연례 봄맞이 기금 모금 바자

2014년 5월 3일 토요일 AWCA 연례봄맞이 바자가 티벡에 위치한 AWCA 회관에서 열렸다. 회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각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남여, 성인, 어린이 의류와 악세서리 및 스카프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다. AWCA 회관 증축공사와 관련해 이전을 앞두고 열린 바자에서 순이익금 5 천여불을 모았다.



## 8. AWCA 회관 증축

AWCA는 현재 뉴저지 티벡에 있는 회관을 기존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게 되어 5월 둘째주부터 프로그램을 다른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AWCA 메인 오피스와 홈케어는 임시 사무실을 마련, 업무에 들어갔다. AWCA 회관의 증축공사는 공

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AWCA를 위해 회관 건물주인 9 Genesee, LLC측이 제공한 것으로, 내년에는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 9. 어버이날 행사

2014년 5월 7일 AWCA 시니어프로그램 회원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다. 회원으로 참여하는 백 여명의 어르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즐거운 음악과 함께 선물로 김선우 회장이 준비한 건강한 현미쌀이 제공되었다. AWCA측은 이날 봄학기동안 시니어 회원들이 모은 208불을 한인 및 타민족 불우이웃을 돕는 '1004 펀드'에 전달했다.



## 10. 입양인 학생들 한국문화 체험

AWCA 엔젤입양인 한국학교의 학생과 부모들은 4월 12일(토) 뉴저지 H마트 리지필드 점을 방문해 김치 담그는 방법을 배우고 맛보며 한국 물건 구입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참가자들에게는 H마트에서 준비한 한국 과자선물이 제공되었다.



## 11. 원혜경 이사 -사회봉사상 수상

AWCA 원혜경 이사가 5월 17일 진행된 뉴저지 한인상록회 효행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원이사는 AWCA 회장을 지냈으며 특히 지역사회 시니어 회원들을 위한 많은 봉사를 해왔다.



## 12. 오바마 케어 등록 가입서비스 제공

AWCA는 지난 3월 31일 마감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무료등록 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를 위한 설명회와 개인별 무료등록 가입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 13. 타민족 불우이웃과 따뜻한 한식 나눔

2013년 12월 18일 천사 펀드 운영위원회, AWCA,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은 '위아자 나눔장터'에서 모아진 수익금의 일부를 뉴저지 패터슨에 있는 비영리단체 '스트레이트내 로우'를 찾아 250명의 타민족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한식을 제공하는데 사용했다.



## 14. 어려운 이웃 40명에 '천사바구니' 전달

2013년 12월 17일 1004 펀드 운영위원회와 AWCA는 지난 10월 진행된 '위아자 바자' 수익금의 일부를 뉴욕·뉴저지 일원의 어려운 이웃 40 가정에 생활용품과 마트 상품권 등이 담긴 '천사바구니'를 전달했다.



## 15. 그레이스 핫라인 아름다운 재단 USA 기금 획득

AWCA 가정상담소 그레이스 핫라인 프로그램이 2013년 아름다운 재단에서 1만불의 기금을 받았다. 2013년 12월 12일 뉴욕 맨해튼 디메나 센터에서 열린 연말 자선 음악회 및 기금 배분 행사에서는 총 10개의 공공 프로그램에 1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중 그레이스 핫라인 프로그램이 1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이 기금은 2014년동안 그레이스 핫라인 프로그램 운영과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신건강 교육 및 세미나 제공을 위해 쓰여진다.



## 16. AWCA 창립 33주년 연례만찬

창립 33주년 기념 연례기금모금 만찬이 2013년 11월 15일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펄 리버 힐튼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밥 모리스 'Love 146' 재단 설립자가 기초연설한 이날의 만찬에는 가정상담소 유기숙 정신과 의사, 중국시니어센터 왕가이디가 자원봉사자 상을, 그리고 뉴저지밀알선교단이 커뮤니티 봉사상을 받았다. 이날 만찬행사를 통해 총 15만불의 기금이 모아졌다.



## 17. 뉴저지 나눔장터 수익금 전달

AWCA, 아름다운 재단, 한양마트 관계자들은 2013년 10월 19일 열린 뉴저지 지역 '위아자 나눔장터' 수익금 \$7,171.25 를 11월 1일 1004펀드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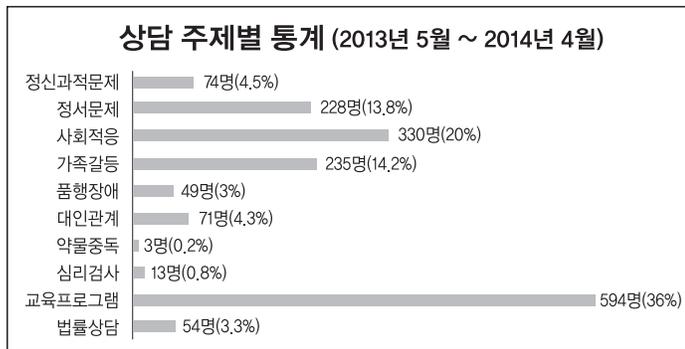


# 가정상담소

## KFSC

### 1. AWCA 가정상담소 창립 2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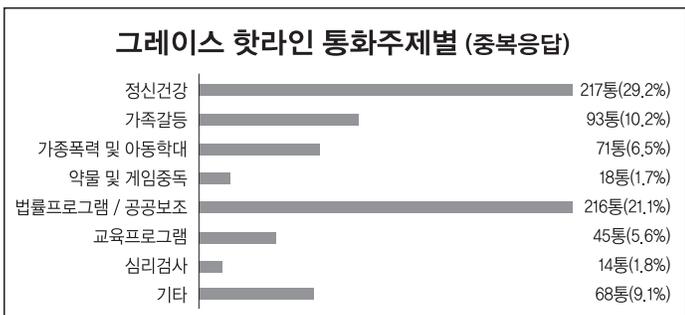
AWCA 가정상담소는 1989년 9월 뉴저지 내 한인의 정신 건강문제와 사회적응 과정을 돕고자 설립되었다. 2009년 현재의 티넥 사무실로 이전 후, 주 5일 상담서비스 제공, 그레이스 핫라인 설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문제에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립 당시 69건이었던 연간 상담건수가 992건 (2013년 5월 ~ 2014년 4월기준)으로 약 14배 성장을 보이고, 총상담 인원수가 1,651명에 이른다든 점에서 지난 25년간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인 상담통계 분포는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그레이스 핫라인 설립 4주년

그레이스 핫라인이 지난 2013년 11월로 설립 4주년을 맞았다. 그레이스 핫라인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한 해 동안 총 671명이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이 중 정신건강 관련 상담 217통 (29.2%), 법률프로그램 및 공공보조 신청 216건 (21.1%), 가족갈등 93건(10.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71건 (6.5%), 약물 및 게임중독 18건(1.7%) 순으로 정리된다. 작년 한 해 핫라인은 법률관련 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그레이스 핫라인은



2014년 3월부터 한개의 오피스라인을 추가하여, 저녁시간에도 두개의 전화라인으로 정신건강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 3. 제 5기 핫라인 자원봉사자 훈련

2013년 11월 첫째주부터 6주간 제5기 그레이스 핫라인 자원봉사자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총 7명(그레이스윤, 문은교, 신난숙, 유숙희, 임정선, 정희숙, 조영선)의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양성이 되었고, 이들은 2014년 한 해 동안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핫라인 응대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그레이스 핫라인 자원봉사자 훈련은 매년 1회 실시되며, 6기 핫라인 자원봉사자 훈련은 2014년 11월 첫째주 목요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4. AWCA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AWCA 무료법률 상담은 2010년부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한인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지나 변호사(가정법, 상법), 노창균 변호사(이민법, 민법)와 함께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4년 3월 줄리김 변호사(가정법, 형사법)의 합류로 상담 서비스가 확대 편성되었다. 현재 무료법률 상담은 매달 둘째주 화요일, 마지막주 수요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1년 동안 총 54명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AWCA 무료법률상담은 일대일 상담이 원칙이며, 예약 접수가 필수이다.



## 5. 초대교회 협력 기관 등록 및 기금 지원

AWCA 가정상담소는 뉴저지 놀우드에 위치한 초대 교회의 협력 기관으로 2년 연속 등록되어, 2,400달러의 지원금을 배분 받았다. 이 기금은 2014년 한 해 동안 그레이스 핫라인 운영 및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사용된다.

## 6. 정신건강 관련 정기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AWCA 가정상담소에서는 2013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주제의 정신건강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을 제공해왔다. 2013년 9월과 10월 "우리학교 생활 더 잘 이해하기"를 주제로 2차에 걸친 학부모 워크숍, 2014년 2월과 5월 "아동학대 이해하기"와 "가정폭력 이해하기" 워크숍, 그리고 2014년 3월 "ADHD 자녀와 행복한 상호작용 만들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제공했다. 총 15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이 교육프로그램은 정신건강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한인지역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AWCA 가정상담소는 2014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2014년 하반기 프로그램 및 이벤트

### 하반기 세미나 및 워크숍 일정

#### 1) Support Group :

##### "Child Study Team의 도움을 받는 자녀의 생활 돕기"

- 일시 :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AWCA 가정상담소

#### 2) 2014 하반기 세미나 :

##### "보다 용기 있게 삶의 후반기 설계하기"

- 일시 : 2014년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한소망교회  
(1190 River Rd, Teaneck, NJ 07666)
- 강사 : 이혜성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 3) 3분기워크숍 :

##### "자녀와의 행복한 소통을 위하여"

- 일시 : 2014년 10월 중 (추후공지)
- 장소 : 추후공지
- 강사 : JoAnn Tuttle, CCC-SP

#### 2. 제6기 그레이스 핫라인 자원봉사자 훈련

- 일정 : 2014년 11월 6일부터 6주간
- 대상 : 정신건강 핫라인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신청마감 : 2014년 10월 17일까지

## Grace Hotline 자원봉사자 편지

AWCA 가정상담소 Grace Hotline에 자원봉사자로 같이 참여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망설임 없이 시작한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저는 놓치고 있었던 커뮤니티 내 정신건강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언어 및 문화적 한계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매달 이루어지는 정기모임과 여러 교육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쌓여 온 정보와 노하우가 이제 제게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모임과 여러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그동안 미숙하게 살아 온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저의 작은 바램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훌륭한 교육에 참여하고, 질 좋은 정보를 배우고, 또 필요한 이들과 나누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AWCA 가정상담소와 Grace Hotline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가정상담소 Client 편지



### 첫번째 감사 편지

저는 PDD(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전반적발달장애), 그리고 Asperger 증후군을 갖고 있는 12세 남아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 지금까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왔지만, 6학년말부터 중학교 진학에 대한 심한 불안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심지어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여 여러가지 Evaluation을 받았었습니다.

아이는 언어 발달장애가 있어서 영어만 가능하지만, 아이의 Neurologist는 같은 문화권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치료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영어만하는 12세 남자아이를 상담해 주실 한국인 상담치료사를 만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오랜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상담치료인지라, 고가의 상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과 위치적 조건을 맞추는 것 역시 어려워, 상담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기적과 같이 AWCA 가정상담소를 만나 최상의 조건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며, 아이가 중학교를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상담 시작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아이는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특기였던 미술을 살려 각종 미술대회상을 받았으며, 가족관계까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이가 활기차지고, 웃음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움을 준 AWCA 가정상담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두번째 감사 편지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은 것도 많이 수치스러운데 법원에서 Anger Management(분노조절) 상담을 명했다. 당황스러웠다.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편하니까 한국분을 찾아야 되는데, 창피함이 스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금전적 문제가 심각하다. 한 두 번도 아니라 여러번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비용이 만만치않다고 한다. 신문 혹은 생활정보지에서 AWCA 가정상담소를 본 기억이 나 전화해 보았다. 다행히도 너무나 저렴한 상담료에 안도와 감사함이 든다. 그리고 걱정되는 상담이 시작됐다. 젊은 선생님이라 어찌지했는데 나이는 숫자일뿐.....

짧은 상담이 끝난 지금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지금 내 속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걸... 내 자신의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S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AWCA에게도 감사하다.

정신 건강 및 개인, 가족관계 문제 관련 위기상황에서  
한국말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전화입니다.

**그레이스 핫 라인**

정신건강 안내전화 : 월 - 금요일 / 오전 9시 - 밤 12시

**201-862-1116**

**877-862-1116**



# 홈케어 HOME CARE

## 1.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홈케어 사무실이 9 Genesee Ave.에서 381 Teaneck Rd.로 이전하였습니다. 홈케어의 성장에 맞추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기존의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동안 잠시 이전한 것으로 내년 봄까지 증축을 완료한 후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 2. 42차 CHHA 교육을 마쳤습니다.

8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한 42차 CHHA 교육이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76시간의 교육을 마친 지원자 모두는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뉴저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3. 올해로 3번째 In-Service Class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 11일한국, 중국 CHHA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올해로 3번째의 In-Service 교실을 가졌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 안부를 나누고 6시 40분부터 Dr. 최민기 박사의 노인성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대한 원인과 치료, 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한국파트는 조이스 고 간호사 선생님이, 중국파트는 레베카 린 간호사 선생님이 맡아서 호스피스에 대한 강의를 이어졌습니다.

## 4. Competency skill

### 실습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일주일간 CHHA 여러분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꼭 필요한 Skill을 반복 연습하고 실습해 보는 Class를 갖을 예정입니다. 맥박, 호흡측정에서부터 환자를 침대에서 일으키고 안전하게 휠체어로 옮기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법과 침상 목욕법, 평소 관절을 이용한 운동법 등 다양한 기술을 실습하고 간호사의 진행에 따라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5. Staff 소식을 전합니다.

새로운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조이스 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중국파트의 새로운 스태프로 Min Li 선생님이 7월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Lolo Kong 선생님이 출산을 위해 약 3개월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이스 고 간호사



Min Li / Han Ping Song RN

www.awcanj.org



유일하게 한인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가정간호 서비스

# AWCA 가정간호

## 가족의 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 ▶ 노령으로 인한 질병으로 아프신 분
- ▶ 수술 후 돌보아 주실 분이 필요하신 분
- ▶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

무료 사회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소지자는 무료입니다.



9 Genesee Avenue, Teaneck, NJ 07666  
Tel. 201-862-9111 Fax. 201-862-0005

AWCA Fall Gala 2014  
Love Delivers Hope

# AWCA 34주년 연례기금 모금 만찬

일시 : 2014년 10월 17일(금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The Terrace at Biagio's

299 Paramus Road  
Paramus, NJ 07652

### 시니어센터 개강

한국 : 9월 3일(수) 오전 9:30

장소 : 한소망장로교회

1190 Teaneck Rd, Teaneck, NJ 07666

일본 : 9월 9일(화) 오전 9:30

장소 : 한소망장로교회

1190 Teaneck Rd, Teaneck, NJ 07666

중국 : 9월 12일(금) 오전 9:30

장소 : East Bergen Christian Church

320 Beverly Rd, Teaneck, NJ 07666

### 엔젤입양인한국학교 개강

9월 27일(토) 오전 10시

장소 : 나비박물관

### 아이소리모아 어린이합창단 개강

뉴저지 9월 9일(화) 오후 4시

장소 : 한소망장로교회

1190 Teaneck Rd, Teaneck, NJ 07666

뉴욕 웨체스터 9월 10일(토) 오후 1시

장소: 뉴욕 Hartsdale, Seed 학원

15 Wilson St, Hartsdale, NY 10530

### 평생교육원

독서교실 : 9월 9일(화) 오전 10시

수필교실 : 9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AWCA 가정상담소

1329 Teaneck Rd, Teaneck, NJ 07666

### 엔젤입양인한국학교 1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일시 : 2014년 12월 12일 (금) 오후 6시

장소 : WOW (나비박물관)

1775 Windsor Rd, Teaneck, NJ 07666



Asian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9 Genesee Avenue, Teaneck, NJ 07666

